

여성의 직업참여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지원체계

국 민 호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 들어가는 글

20세기 후반에 우리는 중요한 사회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1960년대 여성해방운동의 확산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을 남성과 동등하다고 간주하고 여성 자신이 자신들의 육체와 삶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1980-90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여성해방운동은 전 세계로 급속하게 퍼져나갔다. 남녀평등의식의 확산은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와 믿음체계를 뒤흔들어 놓았고, 이어 사회 제도 및 생활 양식의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제 이러한 변화 추세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여성해방운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사회 전반에 급속한 의식의 전환과 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여성의 직업참여는 여성들의 경제적 독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용과 임금, 승진 등 직업과 연관된 분야에서의 남녀평등의 실현은 여성해방운동가들의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오늘날 선진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남녀간의 교육기회의 평등이 실현되면서 전문·경영직에 진출하는 여성의 비율이 크게 늘고있다. 최근에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여성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여성의 직업참여는 기존의 가족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여성의 직업참여와 이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은 너무나 지대하여 가히 혁명적이라 말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0세기 후반에 급격히 일어난 여성의 직업참여와 가족구조의 변화가 여성의 삶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대에 살펴보았다. 글의 전개 순서는 우선적으로 한국 가족구조 내에 잠재해있는 전통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 현대 한국의 가족 내에서 여성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가족에 대한 개괄을 하였다. 다음으로 여성의 직업참여가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구조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남녀평등과 여성 권익향상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여성운동의 진행 속에서 나타나는 역작용의 문제점을 간단히 짚어보았다.

2. 한국 가족구조 내의 전통적 요소와 여성

한국의 전통적 가족구조를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은 농경과 유교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농업이 전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노동력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가족이 매우 중시되었다. 여기에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였던 유교는 개인을 가족에 예속시키고 가족 및 친족체계가 사회체계의 근간이 되는 사회체제를 만들었다(이광규, 1998:52-53).

우리의 전통적 가족구조는 부자간의 관계선을 중요시하는 부자중심(父子重心)의 가족구조였다. 부자중심 가족구조에서는 부부의 결혼 목적이 자녀, 특히 아들을 얻는데 있다. 이러한 부자중심 가족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가부장권이다. 이는 남자가 가장으로서 갖는 권리인 가장권과 아버지(父)로서 갖는 권리인 부권을 합하여 말하는 것으로 이는 대가족의 기초가 되었다. 대가족의 중의를 모을 주체로서 가부장은 그 구성 내부의 소가족의 부(父)와는 관계없이 흔히 최연장자가 되었다. 가부장적 가족체제 속에서 장유유서(長幼有序)와 남존여비(男尊女卑)라는 가족윤리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윤리·도덕 하에서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가부장제가 확립되었다(이광규, 1998:34-41).

장유유서는 부자관계의 이념을 확장시킨 것으로 이는 세대간의 질서와 화목을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질서를 지키기 위한 실천규범에서 핵심적인 것이 효(孝)사상이다. 효 사상에 입각하여 사람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나아가 연장자를 공경하게 됨으로써 세대간 상하관계의 질서가 완성되었다(이광규, 1998:41-42). 부모에 대한 효도는 행동규범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 그리고 가치관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쓰인다. 유교에서의 효도 개념은 부모의 사후에까지 미쳐 부모 사후에라도 자식이 이름을 널리 떨쳐 가문을 빛나게 하면 그것이 또한 효도인 것이다(이광규, 1998: 53).

한국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이러한 유교주의에 입각한 전통적인 가족주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부자중심의 유교적 가족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부계 혈통을 잇는 일이었다. 유교적 부계 혈통주의는 자연적으로 남아 선호사상을 창조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축소되고 여성의 삶 자체도 엄격히 통제되었다. 이는 위계서열적인 남존여비 사상으로 굳어졌다. 전통사회에서의 여성은 삼종지도(三從之道)라는 말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노후에는 아들에게 의지하는 등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있었다(조성남, 1998:265).

여성의 지위는 결혼 후 혈통을 이을 아들을 낳음으로써 어머니의 지위를 획득할 때 가족 내에서 확고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 전통 사회는 남아 출생과 효를 절대가치화 했던 사회인만큼 아들을 낳고 기르는데 대해 어머니로서의 명예와 보상이 주어졌다. 전통 사회의 여성들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자식을 통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었고 죽어서는 남녀가 동등하게 조상으로서의 예우를 받음으로써 사회적인 보상을 받았다. 이렇듯 전통사회의 여성들은 그 행동반경이 가족에 국한

되었고, 가족간 관계가 삶의 전부라 하 수 있었던 만큼 오로지 가족을 위해 존재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일제시대 이후에 점차적으로 가족 내에서 부부관계가 중요해짐에 따라 현모양처(賢母良妻) 사상이 널리 보급되었다. 이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남편 중심의 가족체도로 여성들은 근대적 직장을 가진 능력있는 남편을 내조하고 자신들의 아이를 기르는데 전념하는 가정주부의 역할을 맡았다(조성남, 1998). 능력있는 남편의 내조자로서의 현모양처 상은 부부간의 엄격한 분담을 특징으로 하는데 여기서 남편은 경제적 책임을 지고 아내는 가사와 양육을 책임졌다.

1960-70년대의 산업사회에 들어와 이러한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는 더욱 정교화되어, 사랑받는 아내와 성공하는 남편의 낭만적 이데올로기로 변모되었다. 여성은 가족 내에서 귀엽고 의존적인 아내가 되어 남편의 성공을 위해 내조하는데 전념하였다. 현대판 현모양처의 본질은 최고의 남편과 최고의 자녀를 만들기 위한 최고의 아내가 되기 헌신하는 것이었다(조성남, 1998:280-281).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전통적인 유교중심적 가족주의는 오늘날까지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 여성 문제의 핵심은 지속적인 남아 선호사상과 결부된 출산과 양육을 여성만이 짊어져야 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여성문제는 자녀 출산과 양육, 그리고 가사노동에서 여성들이 얼마만큼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3. 현대 한국의 가족과 여성의 역할

20세기 후반에 급격히 진행된 각종 가전제품의 발명은 전통적인 여성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전통적인 한국 사회는 자급자족 사회였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농사일, 집안 일에 많은 양의 시간을 소비했다. 식생활에서 소비되는 시간과 노동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의생활에서도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 여자들은 길쌈을 메고 옷감을 짜고 옷을 만들고 세탁을 하는 등 의생활의 대부분을 가내 노동에 의존하였다(이광규, 1998:60). 그러나 현대에 와서 냉장고, 세탁기, 전자 오븐, 진공청소기 등의 발명과 곳곳에 들어선 음식점, 편의점, 의류 매점, 할인점 등을 통해 여성들은 전통적인 집안 일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비 및 생활패턴 자체도 크게 변화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국의 가족구조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우선적인 변화의 특징은 직계가족의 감소와 부부중심 가족(핵가족)의 급속한 증가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아파트 생활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제는 장자도 부모와 별거하여 독자적인 가족을 구성하고 있다. 농촌에서조차도 자녀들이 도시로 분가해감에 따라 대부분의 농촌에는 나이든 부부들만이 사는 부부가족이 일반화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의 직업참여가 확대되고 자녀의 양육비가 부담으로 작동하자 아이를 적게 낳는 경향이 보편화되고 있다. 동시에 아파트 중심의 도시생활은 이웃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와 가족의 고립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 현대 가족의 삶은 부부중심의 소가족이 이웃과 단절된 채 가족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가족구조와 생활 환경의 변화는 가족 내에서 여성의 역할과 삶의 방식 자체를 크게 변화시켰다. 현대 사회에서 집안과 관계되는 일은 여자가 대부분 맡아서 하는데 여성이 하는 집안 일의 범위와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여자가 하는 주된 일은 가정의 운영, 자녀 양육, 친족관계의 유지 등이다. 현대 주부들은 주어진 수입 규모에서 가족원들의 복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효율적인 소비를 해야하므로 많은 양의 시간과 정력을 이에 투자한다. 또한 주부들은 자녀의 교육에 대해 책임을 진다. 아이들의 학교 숙제에서부터 성적, 진학까지의 모든 일을 주로 주부가 책임지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전통적인 엄부자모(嚴父慈母)의 역할이 반전되어 엄모자부(嚴母慈父) 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주부들은 또한 친인척을 관리하고 이웃과의 사회관계망 형성과 유지를 담당해야 한다. 주부들에게는 심지어는 남편의 개인적 사회관계망 유지에도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된다(문옥표, 1997). 사회가 변화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가정 일도 더욱 복잡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다.

한편, 현대의 고립된 가족은 가정 내 휴식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개개인의 직장 및 학교생활은 긴장과 피로의 연속이다. 심리적 이웃이 없는 현대인들은 직장과 학교에서 쌓인 피로를 가정에서 풀고자 한다. 이러한 휴식기능은 주로 주부로서의 여성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 주부들이 하는 집안일 자체도 많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동반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부들은 다른 가족 성원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까지 책임지는 것이 한국 여성들의 실정이다.

1980년대 이래로 우리 나라에서는 여성들의 교육기회가 남성과 동등해지면서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수가 급증하였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점차 여성들의 직업참여가 일반화되면서 가족 내 여성의 위치와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직업참여에 따른 여성의 경제적 독립은 남성 중심적인 전통적 가족규범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4. 여성의 직업참여와 가족구조의 변화

1) 가부장제적 가족구조의 위기

가족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가족이 구성되려면 몇 가지 특징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가족의 첫째 조건은 남과 여 즉 이성간의 결합이다. 둘째는 부부가 동거생활을 하며, 경제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부부간 성행위의 독점과 이에 따르는 자녀의 출생이다(이광규, 1998:32-33). 요약하면, 가족이란 남녀가 결혼을 통해 같은 집에서 같이 생활하며 자녀를 출생하고 돌보는 제도라 말할 수 있다.

18-20세기를 대변하는 산업사회에서의 가족의 특징은 핵가족이었다. 핵가족은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족형태다. 핵가족의 특징은 이성 배우자와의 특권적 성관계가 수반된 공식적인 결혼의 존재, 자녀에 대한 부모의 우위뿐만 아니라 아내에 대한 남편의 우위로 특징지어지는 가부장제, 남자는 집밖에서 경제적 책임을 지고 여자는 집안에서 가사와 자녀양육을 책임지는 역할 분담의 고착화, 그리고 너댓 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렇듯 1960년대까지 모든 가족구조의 기본 형태를 구성하던 핵가족은 1970년대를 지나면서 여성해방운동가들에 의해 가부장제(patriarchalism)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가부장제라 함은 가족 단위에서 남성이 여성과 자녀들에게 제도적으로 강요된 권위를 행사하는 구조를 말한다. 이러한 가부장제적 권위가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회 제도에 스며들면서 가부장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생산과 소비에 걸쳐 일상화되어 있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가부장제적 가족제도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정보화에 따른 경제의 세계화와 그에 따른 여성들의 직업참여 기회의 확대, 인간 재생산 기술의 변화 및 재생산 과정에서 여성의 영향력 증가, 사회 전반에 걸친 여성들의 투쟁 능력 향상, 그리고 다변화된 여성해방운동 등이 있다(Castells, 1997). 특히 여성들의 대규모 임금노동에의 참여는 남성에 대한 여성들의 협상능력을 증대시켰으며, 이는 핵가족 형태의 가부장제적 가족구조에서 당연시되던 남성지배의 정당성을 크게 약화시켰다.

2) 여성의 직업참여

여성의 직업참여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산업사회에서 여성들이 임금노동에 뛰어들게 된 배경에는 계급간 차이가 존재한다. 1950-60년대 가난한 계층의 기혼 여성들이 직업전선에 뛰어들은 이유는 가족의 생활비 증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법에 의해 아동 노동이 금해진 반면 아동을 책임지는 기간이 더욱 길어진 현실에서 추가적인 수입을 위해 주부들이 직업전선에 뛰어들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단순 노동직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에 자신들의 지위에 걸맞는 수입을 남편이 벌어들여 주는 중간계급 기혼 여성들에게는 바깥일이 가족수입과 크게 연관되지 않았다. 이들이 직업을 가지려는 이유는 자유와 자율성에 대한 요

구, 즉 기혼 여성이 남편과 가족의 부속물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평가받으려는 요구에서였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 기혼 여성들의 수입은 남편의 의견에 관계없이 지출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중간계급 자녀에 대한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부모가 자녀들을 20대 후반까지도 재정지원 해야 함에 따라, 중간계급 기혼여성들의 유급노동은 더 이상 독립선언이 아니라 오랫동안 빈민여성에게 해당되었던 것, 즉 수지균형을 맞추는 하나의 방식으로 변모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 있어서 노동에 포함된 경제적 독립과 남성적 지배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의식의 요소는 더욱 굳어졌다(홉스봄, 1997:430-443). 예를 들어, 이전에는 중간계급 아내가 남편의 직장이 바뀔 때마다 거의 자동적으로 남편을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중간계급 여성들이 남편의 직장 때문에 자신의 직업을 그만둔다거나 직장생활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여성의 임금노동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제 가족 내에서 여성의 경제적 공헌은 매우 중요한 가계 소득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집안에서 여성의 협상력이 현저하게 증대되었다. 남성의 가부장적 권위에 대한 여성의 도전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에서 그들 고유의 문화와 역사적 환경에 따라 가부장적 제도를 다양하게 개조하거나 바꾸고 있다. 또한 여성들의 의식과 태도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제 주말부부라든지 부부가 각각 다른 주머니를 차는 것 등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가도 있다.

경제력을 갖춘 여성들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들의 정식 결혼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고,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경우도 감소하고 있다. 여성들의 초혼 연령이 계속 늦추어지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독신을 선호하고 있으며, 결혼 후에도 아이를 적게 갖거나 아이를 늦게 갖는 여성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직장여성의 비율이 높아감에 따라 출산 시기와 아이 수에 대한 여성들이 결정권이 점차 커지고 있다. 사회 전반에서 성적 행동, 파트너 관계, 출산을 지배하는 공적 기능이 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점차적으로 카톨릭 국가에서조차 이혼과 낙태가 합법화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동성애자들간의 결혼도 합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여성들이 집 밖에서 하는 직장생활에 대대적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일 자체와 노동시장, 그리고 가족구조가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1973년에서 1993년에 이르는 20년 동안 OECD 국가 여성들의 직업참여율은 48.3%에서 61.6%로 13.3%가 증가한 반면, 남성들의 직업참여율은 88.2%에서 81.3%로 오히려 6.9%가 줄었다(Castells, 1997, 159). 이러한 여성들의 직업참여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경향이 되고 있다.

여성의 직업참여는 한편으로는 정보화의 진행, 통신 네트워크의 발달, 그리고 경제의 세계화에 기인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 경영통제, 이익 증대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가진 분절화된

여성노동시장에서 기인한다. 이들 여성 고용의 증대는 정보화 사회가 더욱 진전됨에 따라 증대되는 서비스 업종의 증가와 일치한다. 비록 대부분의 여성은 사무직에 종사하지만 전문기술직과 경영관리직 분야의 여성 고용이 급신장하고 있다. 이제 여성들은 비숙련 노동 부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술직 직업의 전 분야에 고루 고용되고 있으며, 상위 직업구조에 고용되는 여성들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왜 여성들의 고용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가? 첫째, 전반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직업 창출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남성들의 노동 참여는 줄어든 반면 여성들의 노동 참여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참여 증가를 단순히 노동 수요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성의 노동참여 증대는 남성의 실업률과 무관하게 여성 노동력이 갖고 있는 장점에 따른 노동 풀의 증대에 따라 진행되어져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여성 노동력이 증대된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여성들에게는 남성들에 비해 동일한 일에 대해 보수를 적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졸 여성들의 증가에 따라 여성들의 숙련은 급증한 반면 여성의 임금은 남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았다. 1991년 현재 미국의 여성 임금은 남성의 72% 수준이었고, 독일은 73.6%, 불란서는 80.8% 였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의 43%, 한국은 51%, 싱가포르 56%, 홍콩은 70% 였다.

셋째, 이 모든 경우에 여성들은 비숙련되거나 비천한 직업에 종사한 것이 아니라 전혀 그 반대였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여성만이 갖는 특유의 섬세함과 여성만이 갖는 독특한 인간관계가 요구되었다. 이들 여성만이 갖고 있는 특성에 높아진 교육이 결합됨으로써 여성들은 다숙련 직업으로 승진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업무 관리보다는 인간에 대한 경영이 우선되었고 여성 특유의 인간관계와 교육은 여성만의 협상력을 창출했다.

마지막으로, 여성 노동력의 유연성을 들 수 있다. 여성들은 많은 경우에 임시고용과 파트타임 직업을 구성하므로 유사시에 쉽게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되었다(Castells, 1997: 168-175).

3)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부장제의 약화

여성들의 직업참여는 가족 내 여성들의 협상력을 증대시켰으며, 가족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들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여성들의 가족 내 위상 변화는 가족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렇다면 여성의 직업참여에 따른 가족 내 여성의 지위향상은 어떻게 가족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첫째, 여성들의 자의에 따른 이혼 및 별거가 증가하면서 가족구조의 안정성이 위협

받고 있다. 이러한 가족 성원들간의 분리는 독신자 가족(single households)이나 편부모 가족(single-parent households)의 확산을 가져왔고, 이는 결과적으로 가부장적 가족구조에서 가장의 권위를 크게 약화시켰다.

둘째, 여성의 직업참여에 따라 나타나는 일과 결혼의 병행의 어려움은 결혼의 연기나 결혼 밖의 남녀관계를 증가시킨다. 이는 제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가부장적 가족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셋째, 노년 인구의 증가, 양성간의 사망률 차이 및 가족구조의 다양성 등은 전형적인 가부장적 핵가족 모델과 사회적 재생산을 약화시킨다. 이 또한 독신자 가족 및 편부모 가족의 증대를 야기시킨다.

넷째, 가족구조의 불안정성 증대와 출산에서의 여성의 권위 증대는 가부장적 가족구조의 위기뿐만 아니라 인구 재생산의 기존 사회 유형의 위기를 확산시킨다. 많은 아이들이 미혼모로부터 태어나고 이들은 주로 엄마가 기른다. 아울러 여성들은 자녀 출산을 통제하고 첫 아이의 출산을 연기한다.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가부장적 가족의 구조 및 가치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가족 구조 자체의 종말이 아니라 수 천년 동안 지속되어 온 가부장적 지배에 기초한 핵가족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족구조의 변화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을까? 우선적으로, 아이를 가진 부부의 이혼률이 점차 증가하면서 편부모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결혼 후 부부로 살아남는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동시에 결혼(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것도 세계적인 경향이다. 결혼 적령기(20-24세) 여성들의 미혼률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결혼 밖에서 출생하는 아이들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부양할 어린이를 가진 편부모 가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여성과 부양할 아이들로 구성된 가족들이다.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의 이혼률은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의 이혼률도 40%를 넘어서고 있다. 동시에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결혼률이 낮아지고, 동거 커플이 증가하면서 결혼 밖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특히 서구에서 높은데 1990년을 보면 전체 출생에서 결혼 밖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비율은 북유럽이 33.3%, 미국이 28.0%, 그리고 호주가 20.25%인데 반해 아시아 국가들은 1% 미만이다(Castells, 1997).

1980년대 편부모 가족의 비율을 보면, 미국이 가장 높아 23.9%이고, 다음이 소련으로 20.0%, 스웨덴과 영국이 각각 17.0%, 14.3%였다. 반면에 일본은 4.1%로 매우 낮았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동거비율이 매우 높고(스웨덴 44%, 덴마크 43%, 노르웨이 28%, 핀란드 26%) 동시에 결혼 밖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비율과 편부모 가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북미의 경우에도 결혼 밖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의 비율과 편부모 가족의 비율이 높다(미국의 경우 이는 압도적으로 흑인의 경우에 해당된다). 이들 국가들에서는 또한 독신자 가족의 비율도 매우 높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

구에서의 가부장적 가족구조는 전체 가족형태의 1/4인 25%에도 못미치는 소수의 가족형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서구에서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형태가 더 이상 보편적 가족형태라고 말할 수 없다(Castells, 1997).

가족의 불안정, 동거, 결혼 밖에서의 출산 등의 증가는 주로 서구 선진국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서구는 근본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부자중심의 가족구조와는 다르게 부부중심의 가족구조가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부부중심의 가족구조는 부부 중 한 쪽이 사망하거나 이혼할 경우 그 즉시 가족이 해체된다. 반면에 부자중심 가족구조에서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사망하거나 이혼하여도 가족구조가 유지된다(김광규, 1998:34-36).

부부중심의 서구 사회는 물질 이외의 삶의 질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자유풀과 정치력을 즐기고 있다. 여성들이 경제적인 독립을 누리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혼, 동거, 결혼 밖 출생이 널리 유행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사회적 속박을 받기보다는 편부모 가족을 이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부중심의 사회에서는 결혼 밖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여성의 자아확인 과정에서 빈곤과 교육 결핍에 놓일 확률이 커진다.

근래에 이르러 한국의 경우 부자중심의 가족구조에서 부부중심의 가족구조로 급격히 변모해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부부중심 가족이 서구의 부부중심 가족과 유사해질지는 의문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도 이혼이 널리 일반화되고 있다. 이는 다분히 여성의 직업참여 및 여권신장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유교적 가족주의가 강하게 남아있는 한국사회에서 서구에서 널리 확산되고 있는 동거, 미혼모, 양자관행 등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한편, 여성들의 직업참여가 여성들에게 꼭 유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여성의 직업참여가 증대됨에 따라 가족과 사회에서 여성들의 권리가 급신장 되고 있으나 이는 동시에 여성의 일과 생활에 과중한 노동을 부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많은 가정에서, 전통적으로 여성들에게 부과된 집안 일, 즉 현명하고 절약적인 소비생활, 자녀 돌보기, 친인척 관리하기, 밤에 남편을 위한 봉사 등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으면서 임금노동자로서의 역할이 첨가되었다. 또한 사회 곳곳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어서 남녀평등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남녀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나라

의 여성 지원체계는 주로 정부에 의해 주도된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정부정책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근본 목표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켜 남녀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근대 사회에서부터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고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던 만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심했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사회적 약자였으며 보호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최근까지 여성정책의 대부분은 특정 보호대상의 여성들을 보호하는 소극적 차원의 치유가 주종을 이루었다. 그 내용을 보면 빈곤여성에 대한 보조, 매매춘 여성의 보호,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한 보호 등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남녀평등의식이 확산되면서 여성의 존재를 보호와 치유의 대상이 아니라 남성과 대등하게 자신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제 여성정책의 목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복지증진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남녀평등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로서 우선적으로 법적 지원체계를 들 수 있다. 1980년 이전에 제정된 대부분의 여성관계 법률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사회로부터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어, 1953년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여성보호규정을 신설하고, 1961년에는 윤락방지법을 제정하여 여성을 사회로부터 보호하는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1980년 헌법 개정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남녀 양성 평등규정을 신설하면서부터 적극적인 남녀평등 규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5년에는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이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하였고, 1987년에는 헌법개정을 통해 여성고용차별금지과 모성보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나아가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다. 1989년과 1991년에 각각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에서 남녀 성별제한모집 규정을 철폐하여 평등고용의 시작을 알렸다. 1994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97년에는 가정폭력 관련법을 제정하였다.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매우 포괄적으로 여성의 권익신장을 규정하였다. 여기에서는 교육에서의 남녀평등 및 남녀차별의식 개선에 관한 정책,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고용상의 남녀차별해소에 관한 정책, 여성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정책, 여성보건 및 모성보호에 관한 정책, 보육시설에 관한 정책,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등 보호여성 및 노인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관한 정책 가사노동가치의 평가 등에 관한 정책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되었다. 1999년에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와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남녀평등의 달성을 넘어서서 이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여 적극적으로 여성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이렇듯 1980년대 이후 사회전반의 성차별적 법과 제도가 정비되었으며 이에 따라 남녀평등 의식

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관행이 개혁되었으며 여성의 대표성이 제고되었다.

이러한 법과 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실질적인 여성들의 지원체계가 여러 면에서 요구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국가의 여성담당 기구를 통한 지원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 여성정책 담당기구의 변천을 보면 1948년 보건사회부에 부녀국이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1963년 부녀국이 부녀아동국으로 개칭되었고, 1981년 보건사회부 가정복지국으로 개편되면서 가정복지과가 신설되었다. 1983년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여성개발원이 설립되었다. 여기서 기존의 부녀라는 말이 여성으로 변경되고 여성의 사회참여, 지위향상 등의 정책목표가 구체화되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1995년을 전후하여 각 지방정부에 여성위원회, 여성발전연구위원회, 여성정책위원회 등의 명칭으로 여성정책을 심의·자문하고 연구하는 기구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1988년에는 정무장관실이 발족하고 시·도에 가정복지국이 설치되고 여성국장이 임명되었다. 동년에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마침내 2001년 1월 29일 여성부가 신설되었다.

여성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락행위 등의 방지업무 및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사무를 이관받았다. 따라서 이들 소외여성을 위한 지원이 여성부의 중요한 사업이 되었다. 그 외에도 여성부는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여성발전기금에 정부출연금을 확대하고 있으며, 여성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위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단체 등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추진함으로써 이들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여성 고용의 촉진과 안정을 위한 지원체제로 남녀 고용기회를 균등히 할 실질적 기반의 확립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열악한 여성의 고용촉진 정책과 아울러 직장-가정 양립의 지원체계 확립, 여성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대책,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의 확립, 여성전문인력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과 여성의 평생교육지원체제의 확립을 비롯한 다양한 여성·가정 복지 서비스의 확충이 정책과제로 연구되고 있으며, 여성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육산업의 확충 및 내실화,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대책 등이 마련되고 있으며,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문화활동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곳곳에 여성문예회관이 건립되고 있고 여성단체활동에 대한 지원이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다.

6. 역기능: 소외되는 남성과 버려지는 아이들

(1) 소외되는 남성들

집안에서 남성들의 경제적 협상력이 감소함에 따라 남성들은 더 이상 가족 내에서 지배력을 강요할 수 없게 되었다. 재생산 과정에서 남성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여성들의 결정권이 커짐에 따라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또한 여성들의 직업 진출이 다방면으로 더욱 활발해지고 여성 해방 아이디어가 더욱 확산됨에 따라 남성들은 직업전선에서 여성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었다. 이제 남성들은 과거에 비해 덜 안정된 직업에서 더 적게 벌게 되었고, 가족 내에서의 권위도 상실되게 되었다.

점차적으로 남자들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책임은 여전히 많은데 이에 대한 남성들의 권리와 권위는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남성들이 가부장적 가족구조를 재생산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남성들은 이제 몇 가지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첫째, 결혼을 기피하는 것이다. 아이의 출산에 대한 결정권 및 자녀 양육과정에서의 남성의 권위는 약화되는 반면 가족에 대한 부양부담은 지속되는 현실에서 남성들은 결혼을 기피하려 든다.

둘째, 기혼자는 약화되는 가부장적 권위에 대항하여 별거나 이혼을 통해 가족의 의무로부터 벗어나려 할 것이다. 과거에 여성 해방 차원에서 제기되었던 별거나 이혼에 대한 요구는 이제 남성 해방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남성들은, 과거 여성들이 레지비언이 됨으로써 남성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한 것과 같이, 게이가 됨으로써 사회적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가능성이 높고 많이 이루어지는 해결책은 가족 내에서 남녀간의 계약을 재협상하고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집안 일을 같이하고, 경제적 파트너 관계를 수립하고, 성적 파트너 관계를 조정하고, 부모 역할 및 자녀 양육 부담을 나누는 것이다.

(2) 버려지는 아이들

여성들의 직업참여는 여성들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쓰는 절대적인 시간의 양을 감소시킨다. 부부의 직업참여는 부부 모두가 아이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시간을 적게 만들고 있다. 과거 직장을 가진 남자들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등한했던 것처럼 이제 직장을 가진 여성들도 아이를 돌보는데 무관심해지거나 등한해진다. 여성들이 직장 자체와 직장 내에서의 경력관리를 통해 자신의 일에 몰두하면 할수록 자녀들의 관계에서 소원해진다. 나이가 이혼률의 급증은 편부모 밑에서 자라거나 버려지는 아이들을 양산하고, 이들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해진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된다. 또한 결혼

밖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이 정상적인 교육과 돌봄을 받을 기회 역시 더욱 줄어들고 있다. 현대사회에 올수록 버려지는 아이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참고문헌

- 문옥표, 1997. “도시중산층의 가족생활과 주부의 역할.” 조혜정 외, 『성, 가족, 그리고 문화-인류학적 접근』. 한국문화인류학회편. 집문당. 189-234쪽.
- 앤서니 기든스, 1988. 『제3의 길』. 생각의 나무.
- 에릭 홉스봄, 1997. 『극단의 시대: 20세기 역사』. 까치.
- 이광규, 1998. 『한국가족의 사회인류학』. 집문당.
- 조성남, 1998. “한국사회와 여성의 삶.” 국제한국학회, 『한국문화와 한국인』. 사계절. 259-309쪽.
- Castells, Manuel, 1997. “The End of Patriarchalism: Social Movements, Family and Sexuality in the Information Age.” in *The Power of Identity*. Blackwell Publishers, 134-242.